TV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5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00 채널A아침뉴스 50 웰컴 투 시월드(재)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5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두 여자의 방〉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은희〉 40 여유만만	30 MBC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뉴스 10 50 정치 이야기 是是非非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자전거 55 튼튼 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50 웰컴 투 돈월드(재)	00 대한민국 행복발전소(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50 인간극장 스페셜 (재)	00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00 KBS 뉴스12		00 MBC 정오 뉴스 20 우리가락 우리문화	00 SBS 12 뉴스 30 KJB배 KBC 고교동문 골프대회(재)
1	00 뉴스 특보 1~2부	00 KBS 착한 스포츠 프로젝트 제1편(재) 50 뉴턴의 사과나무	35 힐링투어 야생의 발견(재)	25 통일 전망대	30 엄마랑 아빠랑 지구 한바퀴 스페셜
2		00 2013 ABU 최우수상 수상 앙코르 〈슈퍼피쉬〉(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계는 지금(재)	05 키즈 사이언스 베스트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명랑해결단(재)	00 뉴스 토크	00 후토스 미니미니(재) 25 구름빵(재) 55 TV유치원(재)	00 MBC 경제 뉴스 10 꾸러기 식사교실 베스트	1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40 굿바이 패티김 그녀의 마지막 노래
4	10 박종진의 뉴스 쇼 쾌도난마 1~2부	00 네트워크 특선 다큐멘터리 〈詩〉 55 튼튼 생활체조	25 애니월드 55 맘마미아	00 똑? 똑! 키즈스쿨 30 도비도비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10 채널 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브라보 멋진 인생	05 토크콘서트 〈화통〉
7	20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7 30 러브 인 아시아	50 일일 드라마 〈루비반지〉	15 일일연속극 〈오로라 공주〉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못난이 주의보〉
8	30 갈데까지 가보자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스페셜 55 1대100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현장 21
9	40 채널A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컬투의 베란다쇼	
10		00 시사기획 창 50 콘서트 필	00 월화드라마 〈미래의 선택〉	00 월화특별기획드라마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
11	00 모큐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 라인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심장이 뛴다
12	10 웰컴 투 시월드(재) ①:20 특별기획 미래과학 콘서트 2부	30 국악의 향기 ①:10 생활의 발견(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해외 특별기획 드라마 〈초한지〉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①:45 MBC 플러스 특선 〈무한걸스〉	35 나이트라인 ①:05 야구본색 55 더 쇼

EBS

06:10 세계의 눈
07:00 미술탐험대
07:15 정글북
07:30 부릉부릉 브루미즈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놀이터 구조대, 뽀잉
08:35 방귀대장 뿡뿡이
08:50 숲 속 친구 파파룰라
09:05 시계마을 티키톡
09:20 부모 〈산만한 아이의 비밀〉
10:00 한국기행
10:20 명의의 건강비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선영의 온기 가득한 훈훈한음식 - 홍합 굴 짬뽕과 두부 버섯 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3:05 지식채널e
13:10 즐거운 수학 EBSMATH
13:20 천하무적 한자 900
13:30 꿀꿀 페파는 즐거워
13:45 바두와 친구들
14:00 잘난 체리우스 박사님
14:15 팅기팅기 이야기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5:00 열려라 아바다스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꼬마거북 크랭클리
15:45 와글와글 친구들
16:00 딩동댕 유치원(재)
16:20 캐니멀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
16:45 숲 속 친구 파파룰라(재)
17:00 방귀대장 뿡뿡이(재)
17:15 시계마을 티키톡
17:30 뽀롱뽀롱 뽀로로
17:45 놀이터 구조대 뽀잉
18:00 미앤마이 로봇
18:15 정글북
18:30 생방송 보니하니
19:30 두키 탐험대
20:00 EBS 뉴스
20:20 청소년 리얼체험 땀
20:50 세계테마기행 〈와일드 브라질 2부 〉
21:30 한국기행 〈청도〉
21:50 EBS 다큐프라임 〈초등 성장 보고서〉
22:45 장수의 비밀
23:15 세계의 눈 〈바위산의 생존자, 로키산양〉
24:05 지식채널e
24:10 세계명작극장

EBS플러스1

00:0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01:00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01:40 내신6감 〈일반사회〉
02:30 포스 〈화법과 작문〉
03:20 〃 〈독서와 문법〉
04:10 〃 〈수학 Ⅰ A형〉
05:00 〃 〈수학 Ⅰ B형〉
05:50 〃 〈미적분과 통계기본〉
06:40 고교특강 올림 #포스 〈영어독해의 기본(1)〉
07:30 〃 〈Basic Grammar〉
08:20 탐스런 〈법과 정치〉
09:10 〃 〈동아시아사〉
10:00 〃 〈경제〉
10:50 〃 〈한국사(1)(2)〉
12:30 최태성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3:00 탐스런 〈한국사(3)〉
14:00 2015 수능 스타트 〈수학 A형(2)〉
15:00 〃 〈수학 B형(2)〉
16:00 〃 〈국어 A형(2)〉
17:00 〃 〈영어 A형(2)〉
18:00 탐스런 〈동아시아〉(재)
19:00 〃 〈한국사〉(재)
20:00 〃 〈한국사〉(재)
21:00 〃 〈한국사〉(재)
22:00 고교특강 올림#포스 〈영어독해의 기본(2)〉(재)
23:00 〃 〈Basic Grammar〉(재)
23:50 지식채널e

EBS플러스2

07:00 다큐프라임 세계의 자연 시리즈
07:50 수학의 원리 마테마티카
08:00 매경 TEST 시험대비 강좌
08:30 요리비전
09:00 즐거운 수학 EBSMATH
09:10 중학 1학년 〈국어①②〉
09:50 〃 〈수학① (상)〉
10:30 〃 〈수학① (하)〉
11:10 〃 〈역사①〉
11:50 중학 2학년 〈영어2-2〉
12:30 〃 〈비문학2〉
13:10 중학 ⓔ포스 영문법 ①
13:50 중학 ⓔ포스 영문법 ②
14:30 중학 ⓔ포스 영문법 ③
15:10 초등 내공 남냄 〈수학 3-2〉
15:40 〃 〈수학 4-2〉
16:10 〃 〈수학 5-2〉
16:40 〃 〈수학 6-2〉
17:10 스쿨랜드
17:20 중학개념 끝장내기 〈영어〉
18:00 〃 〈과학〉
18:40 원더풀 싸이언스(3)(4)
20:20 EBS문화사시리즈 〈제2편 100인의 증언, 60년대 문화를 말한다〉
21:10 한글 기차 치포
21:20 등업신공 〈과학 ①-2〉
22:00 중학 퍼펙트 체크업 〈사회 3-2〉
22:40 TV 중학 3학년 〈영어 3-2〉
23:20 〃 〈비문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5일(음 10월 3일 乙亥)

子 36년생 폭 넓은 교류와 의견 개진이 절실히 요구 된다. 48년생 실망 하겠다. 60년생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72년생 상당한 고통이 따를 것이니라. 84년생 대비하고 있으면 무탈하리라. 행운의 숫자 : 46, 65

丑 37년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49년생 알면서도 모순에 다시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다. 61년생 취약점을 보완한 후에 재도전 하자. 73년생 방해꾼이 끼어들겠다. 85년생 의외의 것이 눈에 띄리라. 행운의 숫자 : 70, 47

寅 38년생 조심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낭패가 되리라. 50년생 다양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62년생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정확히 실행해야 말썽이 없다. 74년생 다수인으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4, 71

卯 39년생 서두른다면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51년생 필수적인 점검 사항을 절대로 잊지 말라. 63년생 길사가 겹치게 되어 바빠질 것이다. 75년생 뜻밖의 인연을 주의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83, 04

辰 40년생 비중 있는 바를 교체하게 된다. 52년생 1차적으로는 무난하겠지만 그 다음이 문제로다. 64년생 빨리 끓는 물이 쉽게 식는 법이다. 76년생 물꼬가 트이면서 연쇄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기쁨이 크다. 행운의 숫자 : 88, 25

巳 41년생 전문가나 중재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53년생 상대의 청을 들어 주는 것이 좋다. 65년생 머지않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니라. 77년생 평소의 신뢰 관계가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날이다. 행운의 숫자 : 61, 17

午 42년생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아픔이 있다. 54년생 주변의 수고로움을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66년생 예정 되었던 것은 차질 없이 들어오겠다. 78년생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날로 새로워 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62

未 43년생 중대사가 벌어지는 날이다. 55년생 상호간의 입장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때이다. 6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을 수도 있느니라. 79년생 기호와 취향까지 고려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행운의 숫자 : 18, 34

申 44년생 위태로운 상황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56년생 쉽게 이루어질 것이니 조바심을 버려도 된다. 68년생 소중한 인연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80년생 필수적인 것은 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2, 45

酉 45년생 편차가 커지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리라. 57년생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 69년생 불가피 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81년생 정확하게 따져보고 저울질 해봐야 할 시기이다. 행운의 숫자 : 35, 82

戌 46년생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58년생 단순 판단한다면 의외의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70년생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82년생 지켜야 할 일은 꼭 준수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0, 36

亥 47년생 충격을 받고 고민할 수 있다. 59년생 새로운 세계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는 모습이니라. 71년생 묵은 것을 털어 버리고 신선함을 시도해 보자. 83년생 한계를 느끼거든 즉시 선회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75, 69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제 든든한 버팀목은 '형들'이죠"

주원, 1박2일 하차 후 뮤지컬 '고스트' 로 무대 복귀

〈주원〉

끝내 몸살이 났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뮤지컬 연습으로 빈틈없이 꽉 채워진 스케줄에 결국 몸이 버텨내지 못했다.

하지만 주원(26·본명 문준원)은 "괜찮다"고 했다.

으슬으슬 추운지 담요를 끌어다 무릎을 덮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소중하다. 질문을 받으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잊고 지내던 옛 얘기를 꺼내볼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말했다.

4일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주원을 만난 건 그가 출연하는 뮤지컬 '고스트'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었다. TV스타로 승승장구 중인 그가 무대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

주원은 2006년 대학교 1학년 시절을 떠올렸다. 뮤지컬 '알타보이즈'로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시절의 얘기다.

"당시 무대에 대한 압박이 심했어요. 주위에서 뭐라 탓하지도 않았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느낌이 계속 들었죠. 큰 벽을 마주한 느낌이었죠. '리더' 역할로 공연을 이끌어야 했지만 무대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졌고, 스트레스로 말까지 더듬게 됐죠."

2010년 KBS 2TV 드라마 '제빵왕 김탁구'의 악역 구마준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후 KBS 2TV '오작교 형제들'(2011)·'각시탈'(2012), MBC '7급 공무원'(2013)에 이어 최근 종영한 KBS 2TV '굿닥터'에서까지 안정적인 연기를 선보일 수 있었던 건 '형들'과 함께한 뮤지컬 무대 덕분이었다는 거다.

뮤지컬계 형들이 연기의 토대를 쌓는 힘을 줬다면 KBS 2TV 예능 프로그램 '1박2일'을 통해 만난 '형들' 또한 그에게 특별하다.

지난해 2월부터 1년8개월 간 '1박2일'에 출연한 그는 지난달 27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그는 방송에서 "내가 형들을 안다는 게 자랑스럽고 좋았다"고 말하며 끝내 석별의 눈물을 쏟아냈다.

"방송을 일부러 안 봤어요. 내가 떠나는 그 장면을 굳이 다시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마지막 촬영을 하러 가는 날(11일) 아침부터 울음이 올라오는 걸 꾹꾹 참았어요. 그런데 결국 참다 참다 이날 터졌어요. 앞으로도 프로그램 밖에서 계속 만날 수 있는 형들이지만 다같이 떠나는 마지막 여행이었으니까요. 요즘도 형들이 '주원이 안 오니?'라고 농담처럼 말해요.(웃음)"

그가 다른 일정을 줄이고 본격적인 뮤지컬 연습에 들어간 건 지난달 9일부터다. 2주간 종로 연습실에서 몸을 풀고 지난달 25일부터는 공연이 열리는 디큐브아트센터에서 노래와 움직임을 맞춰보고 있다.

일약 '스타'가 된 후 다시 서는 뮤지컬 무대에 대한 감회를 물었다.

'감개무량하다'는 식의 과장 대신 "식당 아주머니들이 알아보시고 음식을 더 챙겨주신다"며 웃었다.

'고스트'는 페트릭 스웨이지(샘 역)와 데미 무어(몰리 역)의 사랑을 그린 영화 '사랑과 영혼'(1990)을 뮤지컬로 만들어 2011년 영국에서 초연한 작품이다.

주원은 중학교 3학년 때 연극배우가 되려고 했다. "연극은 가난한 예술"이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말에도 "라면만 먹고 살아도 된다"고 우기던 아이였다. 그리고 그런 고집은 그를 무대와 브라운관·스크린을 아우르는 '전천후 배우'로 성장시켰다. 그는 빡빡한 일정으로 고단하다 느껴질 때마다 그때 엄마에게 했던 그 말을 떠올린다고 했다.

"몸이 아무리 힘들고 몸살이 나도 생각만큼은 '고되다'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요.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누리고 있는 거니까요." /연합뉴스

소녀시대, 유튜브 '올해의 뮤비' 선정

싸이·레이디 가가 제치고 '유튜브 뮤직 어워드' 영예

걸그룹 소녀시대〈사진〉가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튜브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뮤직비디오'에 선정되면서 외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소녀시대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 시상식에서 지난 1월 발매한 정규 4집 타이틀곡 '아이 갓 어 보이(I Got A Boy)'로 싸이, 저스틴 비버, 레이디 가가 등 쟁쟁한 스타들을 제치고 이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섹션 '스피크이지'는 '에미넴과 소녀시대가 유튜브 뮤직 어워드의 큰 승자'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들을 조명했다.

'스피크이지'는 "지난해 2월 '소녀시대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진 적이 있다. 이번 뮤직비디오 수상을 놓고 볼 때 그 대답은 '그렇다(Yes)'다"라고 이들의 가능성을 높이 샀다.

'유튜브 뮤직 어워드'는 한 해 동안 전 세계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사랑받은 노래와 뮤지션을 선정하는 시상식이다. '아이 갓 어 보이' 뮤직비디오는 4일 오후 2시 현재 7400만 건의 조회수와 42만4000 건의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3개 부문 후보로 올라 유력한 수상자로 점쳐졌던 '월드스타' 싸이가 수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유튜브 역대 최다 조회수인 18억건을 기록하고 '젠틀맨'으로도 5억건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유튜브 관계자는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 공유수, '좋아요' 누적수 등을 종합해 후보가 선정됐다. 그러나 최종 수상자는 팬들이 후보들의 영상을 공유하는 방식의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며 "조회수가 높다고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TV 하이라이트

야생에 매혹되다, 브라질

세계테마기행 '와일드 브라질'(EBS·오후 8시50분)= 세계 최대 열대우림의 땅, 브라질. 브라질은 아마존 외에도 매혹적인 자연과 야생을 품고 있는 야생의 땅이다. 세계 최대의 습지, 판타날. 그 면적만 23만㎢로 영국보다 큰 면적인 판타날은 남미의 중앙에 드넓게 자리 잡고 있다.

판타날로 들어서는 길, 판타날 종단도로에선 거대한 악어 한 마리가 가는 길을 막아선다. 천천히 판타날의 습지를 먼저 구경이라도 하라는 듯, 햇볕을 쬐고 있는 수백 마리의 악어 떼들이 판타날로 가는 길을 재촉한다. 낮보다 밤이 짜릿한 야생을 느낄 수 있다는 판타날. 어떤 위험이 도사릴 줄 모를 한치 앞을 보지 못한 채 어둠을 뚫고, 판타날의 야생 동물을 찾아 야간 판타날 정글 속으로 들어가 본다.

'100세 시대' 노인들이 사는 법

시사기획 창(KBS1·밤 10시)= 2013년 오늘을 살아가는 노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취재진은 서울의 대표적인 노인 쉼터 '탑골공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100명이 넘는 어르신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고 생생한 목소리들을 담았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문제부터 정부의 노인복지정책, 노인일자리 사업까지 관련 이슈들에 대해 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탑골공원을 방문한 노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1 : 1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해 그들의 생활수준, 가족형태, 노후대책 등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그 실태를 파악해 보았다. 노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2013 대한민국과 이 시대의 노인들은 어떤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자.

독고 할머니의 눈물 젖은 사연

심장이 뛴다(SBS·밤 11시15분)= 다리가 불편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혜빈〈사진〉 구급대원. 알고 보니 신고자는 자녀들과 연락이 두절돼 외로이 살고 있는 할머니다.

전혜빈은 할머니의 막내딸이 되기를 자청, 손발톱까지 깎아드리며 말동무를 해 드린다.

전혜빈 대원의 마음을 울린 할머니의 사연은 무엇일까.

'소방서 청소물고기' 박기웅과 그런 그가 언짢은 호랑이 선배가 있다. 이들은 사사건건 부딪힌다.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사람의 눈물나는 화해의 현장을 들여다보자.

쉬는 틈을 타 샤워에 나선 소방서 몸짱 조동혁 대원. 그사이 출동벨이 울린다. 누드(?)로 뛰어나온 조동혁 대원의 눈물나는 출동 현장이 시청자들을 찾아간다.